

후쿠자와 유키치 연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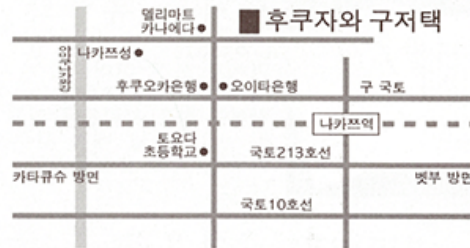
- 1835년 1월 10일 오사카에 있는 나카즈번 저택에서 태어남
- 1836년 아버지 하쿠스케의 사망으로 모자 6명 나카즈로 귀향
- 1854년 형 산노스케의 권유로 난학(네덜란드의 학문)을 배우러 나가사키로 떠남
- 1855년 의사이자 난학자인 오사카의 오가타 코안(緒方洪庵)의 테키쥬쿠학원에 입문
- 1856년 형 산노스케의 사망으로 나카즈로 돌아가 후쿠자와가를 물려받음
- 1857년 테키쥬쿠학원의 학원장이 됨
- 1858년 나카즈번에서 에도로 발령이 나 번주 오키다이라가(奥平家) 저택에 네덜란드 어학교를 설립 (현재의 케이오기쥬쿠대학교의 기원)
- 1859년 요코하마 구경을 계기로 영어학으로 전환, 독학으로 공부함
- 1860년 관린마루(군함)로 도미, 돌아온 뒤 막부의 외국 업무를 하는 관리로 임용됨. 8월에 첫째 번역서인 "증정화영통어" (增訂華英通語) 를 간행.
- 1862년 유럽으로 가는 사절단에 수행해 유럽 각국을 돌아다님.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프로시아, 러시아, 포르투갈)
- 1864년 오바타 토쿠지로(小幡篤次郎) 기타 6명의 나카즈번 제자를 수반해 나카즈로 귀향. 막부의 번역 업무를 하는 관리로 임용됨.
- 1866년 유럽제국을 돌아다니며 견문한 것을 정리해 놓은 "서양사정" 첫편을 간행.
- 1867년 막부의 군함수취위원 수행원으로 다시 미국으로 감.
- 1868년 당시의 연호를 따라 어학교 이름을 케이오의숙(慶應義塾)으로 개칭. 9월에 연호가 메이지(明治)로 바뀜.
- 1870년 나카즈에 돌아가 어머니를 모시고 돌아옴. 이때 나카즈에서 "나카즈 유별의 서" 를 기초.
- 1871년 나카즈시학교 개설에 진력함. 교장 선생으로 오바타 토쿠지로(小幡篤次郎) 를 파견.
- 1872년 "학문의 권유" 첫편을 간행. (1876년에 17편으로 완결)
- 1875년 미타 연설관을 개관. "문명론의 개략" 간행.
- 1880년 코준사(交詢社) 설립에 진력함.
- 1881년 정변이 벌어져 참의 오키마시게노부(大隈重信) 실각. 문학생들도 관계(官界) 에서 추방당함.
- 1882년 불련부당의 신문 "시사신보" 를 창간.
- 1890년 케이오기쥬쿠에 대학부를 설치, 문학, 이세, 법률의 3과를 둠
- 1892년 키타사토 시바사부로(北里柴三郎) 가 전염병연구소 설립하는 데에 진력함.
- 1894년 야바케이의 교슈호봉우리가 매각된다는 사실을 듣고 이것을 매수. 자연보호의 선구라고 할 수 있다.
- 1897년 "후쿠오하쿠와" 간행.
- 1898년 "후쿠자와전집" 전 5권 간행. 뇌출혈을 일으킴.
- 1899년 "후쿠오자전" "여대학평론" "신여대학" 간행.
- 1900년 문하의 수제자들을 통해 편찬시킨 "수신요령" 을 발표
- 1901년 1월 25일 뇌출혈이 재발. 2월 3일 영면.



후쿠자와 구저택



후쿠자와기념관 (후쿠자와 구저택내)



재단법인

후쿠자와 구저택 보존회

오이타현 나카즈시 루수이마치 586번지
 후쿠자와기념관 내 〒871-0088
 TEL 0979-25-0063 FAX 0979-23-2938
 HP <http://www2.ocn.ne.jp/~fukuzawa/>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후쿠자와 유키치 구저택



독립자존이란 수신(修身)함을 뜻한다.

“학문의 권유”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고 사람의 밑의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

身脩學業爲主

심신을 독립시키고 자기자신을 존중하며, 품위를 지키는 자를 “독립자존”의 사람이라고 한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1835년 오사카에 있는 나카쯔번(中津藩)의 낮은 사무라이인 후쿠자와 하쿠수케(福澤百助)의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2살 6개월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형제들 6명과 나카쯔로 귀향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가난했지만 신념을 가지고 살았으며, 15, 6살 풀이 되었을 때부터 학문에 눈을 떠 나중에는 유학(儒學)자인 시라이시 쇼잔(白石照山)의 학원에서 공부했습니다.

1854년 20살 때에 난학(蘭學, 네덜랜드의 학문)을 배우기 위해 나가사키로 유학, 이듬해부터는 오사카에 있는 오가타 코안(緒方洪庵)의 학교에서 학문에 몰두하였습니다. 1858년에는 나카쯔번의 명령으로 에도(지금의 도쿄)에 있는 난학학원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게이오기쥬쿠(慶應義塾)의 시작입니다.

서양문명을 접하고 싶은 마음으로 후쿠자와와는 1860년 에도막부(江戸幕府)가 보낸 군함 “간림마루”(咸臨丸)의 최고책임자의 수행원으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1862년에는 에도막부(江戸幕府) 사절단의 일원으로 유럽제국을 방문했으며 호기심이 넘기던 유키치는 의회나 우편제도, 은행, 병원, 학교 등을 견문했습니다. 그 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양사정”, “학문의 권유”, “문명론의 개략” 등을 연이어 발표해 세계와 격리돼 있던 당시 일본사람들을 계몽해 나갔습니다.



학문의 권유

[1872년-76년간·전17권] 나카츠시학교 개설시 나카츠의 젊은이들을 위해 쓴 것이 그 시작이라고 한다. 봉건적인 신분제도를 받침하는 유교 사상을 비판하여, 실증적이며 새로운 학문의 중요성을 깨우쳤다. “하늘은 사람위에 사람을 만들지 않았고 사람 밑에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글은 첫편의 서두다. 전 17편으로 340만부가 인쇄됐다고 한다.



문명론의 개략

[1875년간·전6권] 서양과 일본 문명을 역사적으로 다시 살펴보고 자신의 역사관을 체계적으로 펴낸 책. 문명을 사람의 지덕의 진보라 하며 서양문명을 받아들임으로써 일본의 독립성이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사이고 타카모리(西郷隆盛)도 이 책에 영향을 받아 카고시마의 사립학교 학생들에게 이 책을 권유했다고 한다.

서양사정 [1866-70년간·전10권]

유럽이나 미국에서 견문한 것을 정리해 쓴 책. 서양제국의 경제의 실정, 학교교육, 병원, 전신기, 가스등에 이르기까지 각가지 시설이나 제도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일반 국민의 서양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으로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토쿠가와 요시노부(徳川慶喜)가 대정봉환(大政奉還, 정권을 천황에게 돌려줌)을 하기로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도 하는 등 신정부의 「五箇条の御誓文」(메이지천황이 선포한 신정부의 기본정책) 「政体書」(메이지유신 정부의 정부조직을 정한 법)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상유조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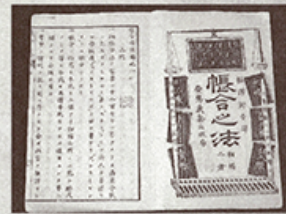
후쿠자와 유키치의 생일날에 아버지 하쿠수케가 오사카에서 구한 책. 유키치의 이름은 이 책 제목에 유래된다.



왼쪽 위에 보이는 것은 후쿠 체재중 쓰던 수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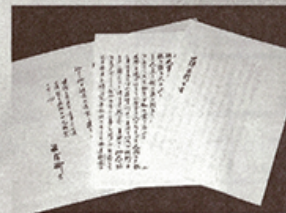
한 몸으로 두 삶을 산 듯 하다.

문명주의의 햇불을 높이 내걸고 일본의 근대화, 민주주의를 선도한 후쿠자와 유키치



장합(帳合)의 법

[1873년간·전4권] 일본 최초의 서양부기학 문헌. 아직 부기라는 말이 없었던 당시 상점 등에서 사용되고 있던 장합(帳合)이라는 말로 대신했다.



나카츠 유벌의 서

[1870년] 연세가 드신 어머니를 모시러 귀향했을 때 루수이초(留守居町)의 구저택에서 사랑하는 향토 사람들을 위해 쓴 것으로 널리 서양학문을 배워 자주독립의 정신을 키우는 것이 급선무라고 간절히 주장했다.



수신요령

[1900년] 문하의 수제자들을 통해 편찬 시킨 책. 전 29조로 구성됐으며 독립자존을 근본이념으로 삼고 가족은 물론 사회, 국가, 그리고 인류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도덕에까지 언급했다. 독립자존의 사람이란 심신을 독립시키고 자기자신을 존중하며, 사람으로서 그 품위를 지키는 자 라고 주장했다.



게이오기쥬쿠대학교

일본에 “연설”을 소개한 후쿠자와 유키치

후쿠자와 유키치는 자신의 의견을 다수의 상대방에게 구두로 전하는 수단으로 스피치를 연설이라 번역해 그 방법을 일본에 소개했다. 그 이후 연설은 그때까지 중심적인 전달 수단으로 사용돼 있던 문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근대적인 의사전달의 수단으로서 중요시되기 시작했다. 유키치가 창설한 게이오기쥬쿠대학교 미타(三田)캠퍼스에는 흰색과 검은색의 벽으로 된 연설관이 지금도 보존되고 있다. 개관은 1875년. 전년에 조직된 미타연설회 전문연설홀로서 기획된 것으로 이같은 목적으로 세워진 홀로서는 일본에서 제일 오래된 건물로, 중요문화재에도 지정되고 있다.

나카츠시학교

구 나카츠번(中津藩)번주 오쿠다이라가의 봉급의 5분의 1에 상당하는 약1060석과 구 번주 상호부조기관인 텐포기사(天保義社)가 준 2만엔을 기금으로 하여 후쿠자와 유키치 이하 게이오기쥬쿠 관계자들의 협조를 얻어 1871년에 설립된 것으로, 지방학교로서는 당시 유수의 영어학교였다.